

이재명, 전북 지지율 DJ 넘을까...제주 “지역경제 살릴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청연루에서 열린 K-컬처 '전통의 소리를 잇다-청년 국악인과의 간담회'에서 김한샘 판소리교본 이수자로부터 장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포구 일원에서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해녀들이 '폭삭 속아져도 투표 해야 주게(합시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제공)

전북

지난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선 전북의 전체 투표율은 전남 81.1%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80.6%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반 지역이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정권을 이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개표결과, 20대 대선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82.98%, 14.42%를 기록했다.

그런 가운데, 내란과 탄핵정국, 조기대선을 맞이하면서 국민의힘에 분노하고 실망한 지역 내 여론은 빠르게 민주당 쪽으로 기운 분위기가.

민주당은 전북지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지지율이었던 93%를 넘는 역대 최고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연상으로, 전북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30% 지지율을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자리수 지지율도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자조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만큼 자신들에 대한 지역여론이 싸늘하게 식어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존 지역내 10%이상이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계엄선포와 탄핵 등을 몸소 겪으며, 민주당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고 강성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이미 이진 대통령 선거인데, 재미가 없다"는 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이 결집할수 있으니 꼭 투표하자"라는 신중론도 있다.

막판 지지층 결집...꼭 투표 후보자 자질 비중있게 봐야 토론회 정책·공약 설명 부족

전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심모(46·여)씨는 "계엄을 했던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은 뒤늦게 호남, 전주 출신이라는 한덕수까지 내세워 지역에서는 '절편피'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 이번 대선은 철회했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민주당이라면 어떻게라도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농민 김한식(63·부안군)씨는 "전 정부가 쌀값 폭락 등으로 농민들을 위해 무엇을 정책으로 내놨는지 기억이 없다"며 "농민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잘 이끌수 있는 후보를 뽑을 생각"이라고 했다.

예수인이영옥(48·김제시)씨는 "총선과 지방선거 등 이전 선거에서는 인물보다는 당을 보고 주로 투표했다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다가올 대선에서는 후보자의 자질을 좀 더 비중 있게 봐야겠다고 요즘 들어 새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란 조유의 사태에 이어서 당초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던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 정당과 후보들을 제대로 평가할 시간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자라나는 아이와 연로하신 부모님 등 가족과 직장을 위해서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 큰 비전을 지닌 후보를 골라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오혜진(35·군산시)씨는 "집에 우편으로 도착한 선거 안내문을 보고 하니 그동안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봐오던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고 대선도 어느덧 성큼 다가온 걸 실감하는 기분이다"며 "최근에 방송 토론회를 유심히 들여다보니 결국 알맹이도 없이 후보들의 공약 설명은 부족하다고 느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대선인 만큼 아직까지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다. 후보들이 남은 시간 각자가 내놓은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더욱 더 자세히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전북일보=김영호 기자

35년간 대통령 족집게 투표 지역·연고에 치우치지 않아 기후위기·농업정책 내놓아야

문가, 데이터전문가를 통합한 전문적인 농업정책 부서를 설립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구좌읍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성우(36)씨는 "지역 농산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로컬 브랜드와 협업을 하지만,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대기업 리조트나 대규모 투자를 위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규제가 까다로워지는데, 행정 절차 간소화와 관광업을 위한 전문 정책 창구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제주관광도 무너진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아는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일도2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철(68)씨는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사리사욕과 당리당락에 눈이 멀어 중요한

제주

제주도는 대통령 선거의 풍향계로 꼽힌다. 2022년 20대 대선을 제외하고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35년간 7명의 대통령을 모두 적중시키는 족집게 투표가 이어졌다.

제주도민들은 지역주의 대결이나 정치 연고주의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대선의 나침반이 돼 왔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아닌 민생 경제를 살리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정책과 공약 대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귀포시 대천동에서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강우호(47)씨는 "농사는 하늘이 반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작년에 장마와 폭염으로 레드향은 열매가 터지고, 한라봉과 천혜향은 산도가 낮게 빠지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했다.

강씨는 "대선 후보들은 기후 위기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며 "생명산업인 농업이 안정적인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전문가와 농업전

35년간 대통령 족집게 투표 지역·연고에 치우치지 않아 기후위기·농업정책 내놓아야

민생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장사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가게가 크고 종업원이 많다는 이유로 정책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든 것은 자영업자 누구나 마찬가지"라며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인 만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이번 대선에서 발굴돼 실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청년 유권자인 김영진(27)씨는 "정국이 어지러운 만큼 이를 바로잡을 인물이 필요하다"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처럼, 위기를 극복하며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열정적인 후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건입동에서 만난 대학생 이지현(25)씨는 "요즘 임대업계가 특히 어렵고, 청년 일자리도 부족한데 대선 후보들은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명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라며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여성기업의 특화 상품개발 지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여성 기업인들은 수도권 못지않은 균형 있는 기회 제공과 농업·관광·식품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창업·성장 지원 정책으로 여성 기업들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일보=진유한·조병관 기자

“투표해야 국민 여러분이 승리...사전투표 적극 참여해달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29~30일)를 나흘 앞둔 25일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의 옥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만약 사전투표를 못 거리는 보수 지지층을 안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다"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직접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것은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투표를 거리는 보수 지지층을 안

심시키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투표해야 6월 3일 국민 여러분이 승리한다"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4일 후면 사

전투투표도 시작된다. 투표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서 "여러분의 손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 위대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가 꾸는 꿈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

한사람의 보험납입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